

(불 입)

전시유물 사진과 설명



< 봉황도(鳳凰圖) >

오일영(吳一英)/이용우(李用雨), 1920년, 비단에 채색(등록문화재 제242호)

대조전 대청 동쪽 상단 벽에 그려졌던 이 그림은 봉황을 주제로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과 나리꽃, 청록화풍으로 표현된 바위 등이 극채색(極彩色)으로 함께 표현되어 있다. 봉황은 태양을 마주하는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오동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 않고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는 『산해경(山海經)』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봉황은 예로부터 군왕의 덕치(德治)를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로서, 왕을 상징하는 그림의 소재와 각종 의례 용품 등의 문양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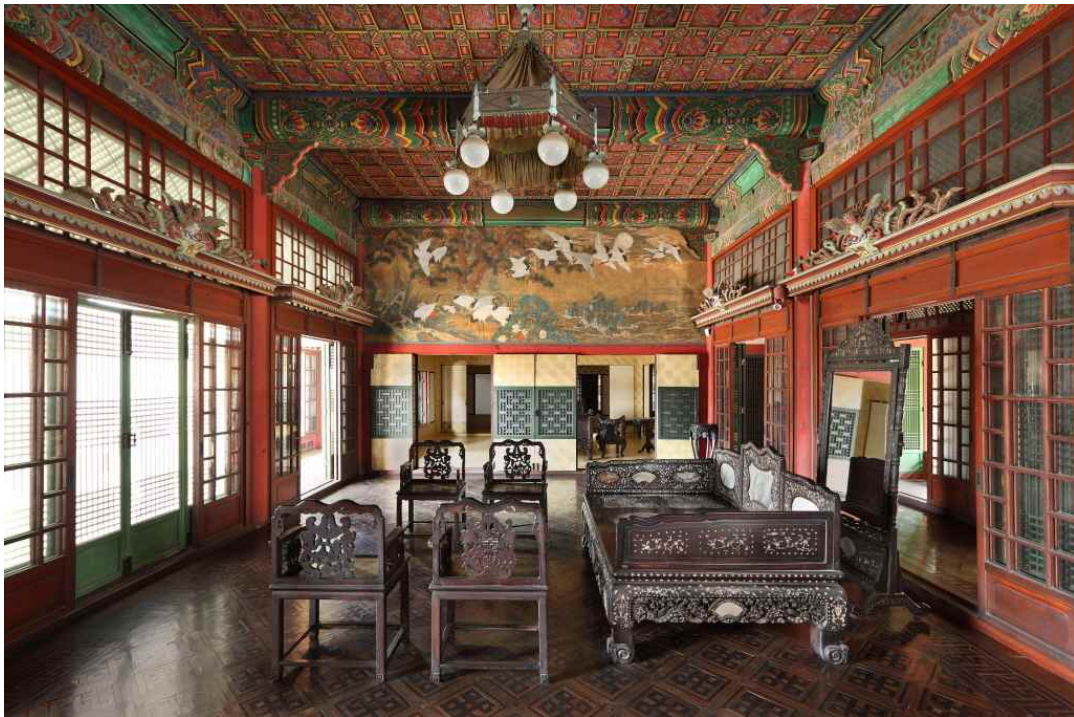
< 백학도(白鶴圖) >

김은호(金殷鎬), 1920년, 비단에 채색(등록문화재 제243호)

대조전 대청 서쪽 벽에는 16마리의 백학이 달을 배경으로 소나무를 향해 날아와 앉는 모습이 동쪽 벽의 <봉황도>와 대칭을 이룬다. 기록에 따르면 대조전에는 <봉황도>와 함께 <천보구여도(天保九如圖)>가 장식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대청을 이루도록 백학을 소재로 한 그림이 그려졌다. 이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학, 사슴, 소나무, 영지, 바위, 물, 해, 달, 산, 거북 등은 모두 '십장생(十長生)'의 요소로, 황제와 황후의 장수와 평안을 기원하고 있다. 동편의 <봉황도>에 그려진 극채색의 청록화풍 바위와 대나무, 모란 등이 함께 그려져 두 그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 '봉황도'(원본)의 본래 설치 모습(동쪽 벽) >



< '백학도'(원본)의 본래 설치 모습(서쪽 벽) >

